

'한국 수영 미래' 여수 총무고 김민섭 속속 커간다

국제 선발전 접영 200m 한국신
개인혼영 400m서도 금메달
중학교 3패 세계선수권 출전
지구력·순발력 겸비 가파른 성장
내년 AG 등 국제대회 메달 노려

김민섭(여수총무고 3년)이 차세대 수영스타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광주에서 열린 2019세계수영선수권에 당당히 출전했던 김민섭은 이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바라보는 기대주로 성장했다. 김민섭은 지난 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3년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접영 200m 결승에서 1분55초95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1위에 올랐다. 문승우(전주시청)가 2021년 5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56초25)을 1년 6개월 만에 0.3초 단축했다.

접영 200m에서 1분55초대에 진입한 것은 한국 선수 중 김민섭이 처음이다. 예선에서 2분00초10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결승에 오른 김민섭은 100m 구간까지 문승우에게 뒤 처졌으나 이후 특기인 뒷심을 발휘해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민섭의 50m별 구간 기록은 26초28, 30초01, 29초93, 29초73이었다. 김민섭은 100m 구간까지는 문승우에게 0.24초가 뒤졌다. 하지만 이후 역전에 성공해 150m 구간을 돌 때 문승우보다 0.28초가 앞섰고,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생애 처음으로 한국 신기록까지 수립했다. 김민섭은 7일 열린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 4분18초77로 실업팀 선배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날 예선에서 4분36초71의 기록으로 5등으로 결승에 진출,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김민섭은 "국가대표 선발전이어서 다소 긴장했지만 태극마크를 바라보며 열심히 운동한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 만족스럽다"면서 "내년



김민섭과 안종택 코치.

〈전남도체육회 제공〉

에 일반부에 가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섭은 내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메달을

노리고 있다. 현재 접영 기록은 1분55초95. 아시아 기록은 세 토 다이아(일본)가 가진 1분52초53, 세계 기록은

크리슈토프 밀라크(헝가리)가 수립한 1분50초34다. 기록 격차가 있지만 김민섭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수영선수로는 지구력과 순발력을 겸비하고 있는 점이 성장 가능성을 밝게하고 있다. 지구력과 순발력을 함께 갖춘 선수는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 접영 기록이라면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무난히 통과해 국제대회에서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목표는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개인혼영 200m 출전. 안종택 코치는 "우선 1분 55초대에 진입한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일본에서 내년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과 항정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섭이 출전을 노리는 계영 800m는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며 "테크닉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 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페퍼스 시즌 두번째 셋아웃 패배...개막 5연패

V리그 도로공사에 0-3

광주 A페퍼스가 시즌 두번째 셋아웃 패배를 기록했다. A페퍼스는 9일 김천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원정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세트 스코어 0-3(19-25, 23-25, 12-25)으로 졌다. 페퍼스는 흥국생명전에 이어 올시즌 두번째 셋아웃 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개막 이래 5연패의 늪에 빠졌다. 니아리드(16득점), 이한비(9득점), 박은서(7득점)가 뽑아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페퍼스는 54득점을 기록했으나 75득점을 올린 한국도로공사에 화력에서 밀렸다. 블로킹 높이에서도 밀렸다. 페퍼스가 1득점에 그친 반면, 도로공사는 9득점을 뽑아냈다. 페퍼스는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고질적인 범실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 1세트에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이한비가 오픈 공격을 성공시켜 15-13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이한비의 스파이크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맥이 끊겼다. 2세트 들어 분위기를 살린 페퍼스는 아웃사이드 히터 박은서의 킥오픈 성공으로 14-11까지 점수를 벌리며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20-20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도로공사 어포짓 스파이커(라이트) 카타리나에게 킥오픈을 허용해 20-21로 리드를 빼앗겼다. 리드는 강력한 백어택을 쏟아냈으며 22-23으로 결정적인 추격 기회를 만들었으나, 한국도로공사 미들블로커(센터) 배우나에게 잇따라 2점을 내주고 2세트마저 한판했다. 리드가 2세트에서 9득점을 뽑아내며 맹활약했으나 빛이 바랬다. 페퍼스는 3세트에 12점 밖에 뽑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플레이로 무릎을 꿇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페퍼스, 목포옥암초와 유소년 배구 발전 협약

조선대·순천대석초 이어 세번째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 배구단이 지난 8일 배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해 전남 목포옥암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대, 순천대석초에 이어 세 번째 업무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A페퍼스 단장과 최희경 목포옥암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A페퍼스는 전남 3개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소년 배구교실을 운영한다. A페퍼스에서 은퇴한 최민지 전력분석관 등 프로배구 선수 출신 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다. A페퍼스는 지난 3월 광주지역 유소년 배구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제1회 A페퍼스배 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순천 지역, 11월 목포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소년 배구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연고지에 국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장하면서 전남 지역의 유소년 배구 발전에 기여하고, 배구 저변을 확대하려는 구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동연 A 페퍼스 단장은 "유소년 배구교실을 통해 광주 지역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의 배구 꿈



김동연 A 페퍼스 단장(왼쪽)과 최희경 목포옥암초 교장이 지난 8일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을 체결했다. (A페퍼스 배구단 제공)

나무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신나요"

10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광주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시청, 회장기 전국유도 단체전 우승

순천시청이 2022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사진> 순천시청(신지정, 양서우, 박다솔, 김지정, 김혜미)은 9일 전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2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결 2023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 일반부 단체전(팀 간 5전 3승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시청은 준결승에서 경남도청을 상대로 2경기 기권승을 거뒀고 양서우가 지도승을 하며 3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충북도청에 신지영이 기권승을, 양서우가 유우회를 상대로 한판승을 거뒀고, 이후 박다솔과 김지정, 김혜미가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승3무로 금메달을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손에



남겼다. 박다솔이 -57kg급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김혜미가 -70kg급에서 은메달을 더했다. +78kg급에서는 신지영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보디빌더 오치광 세계선수권 은메달 '꽤 거'

국가대표 보디빌더 오치광(광주시청·앞쪽 왼쪽에서 세번째)이 세계 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오치광은 최근 스페인 산타 수산나에서 열린 '2022 세계 남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오치광은 -65kg급에 출전해 세계 보디빌더들과 경쟁, 메달을 수확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3번째 출전한 오치광은 그동안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설움을 풀었다. 클래식보디빌딩 -175cm에 출전한 류제형과 황진욱(이상 광주시청)은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펼쳤다. 우리나라 남자 보디빌딩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자백
- 2관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일학교
- 3관 자백, 내 친한 친구의 아침식사
- 4관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 5관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 6관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리멤버
- 9관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첫번째 아이
- 7관 씨네카를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일학교, 리멤버
- 8관 씨네카를 블랙 맨서: 외칸다 포에버, 내 친한 친구의 아침식사, 인생은 아름다워, 블랙 아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